**자기대면 소감문**

**허은미B(분당 14지구 행복한마을 C엠마오목장)**

부부사랑학교와 부부성숙교실을 통해 받은 은혜를 간직하고 나의 내면의 상처를 좀더 직면하고 이제는 과거에서 완전히 벗어나 현재의 삶에 만족하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자 자기대면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나의 과거나 내면을 들여다보면서 감정을 치유해가는 수업이 아닌, 오직 성경을 중심으로 하는 수업이라 너무 생소하기도 했고, 너무나 율법적인 게 아닌가 하고 거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한주 한주 강의를 듣고 숙제해가면서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 가운데, 말씀 암송을 통해 나의 들보가 드러나게 되고, 회개케 하심을 경험했습니다.

솔직히, 나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과 이웃에게 초점을 맞추며 말씀을 적용해 나가는 게 여간 어려운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난 후, 지난 20여년간 신앙생활을 한 게 전부다 잘못된 방향이었음 알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나에게만 초점을 맞추며, 나를 향한 우상숭배와 가까운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삶에 변화가 없고, 늘 제자리를 맴도는 듯한 신앙인으로 살아왔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매번 복습을 하듯 숙제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각 과마다의 부딪히고 또 공감되는 부분, 나의 들보를 보게 하는 만지심이 있었고, 무엇보다 제일 큰 것은 나의 옛사람을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미 죽은 시체나 다름없는 옛사람을 제단에 올려놓고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겨 달라고 하면서 오로지 자기연민에 빠진 어이없는 기도생활을 해왔음을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나의 원가정에서 온전히 분리되지 못한 채, 아직도 친정아버지와 동생들의 삶을 조정하고 통제하는 삶을 살고 있는 들보도 보게 하셨습니다.

오직 성경, 기도, 성령께서 하신 일들입니다. 말씀안에서 기도와 성령의 조명하심 가운데 일어난 회개를 확실하게 경험하면서, 앞으로도 오직 말씀에 권위를 두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로 하나님과 대화하며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통해 계속적으로 나의 들보를 빼내는 작업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또다른 나와 같은 한 영혼을 살리는 사명을 주셨음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내년에도 기회가 주어진다면, 재수강을 통해 좀 더 깊이 있게 묵상 실천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함을 배우며 성숙을 이뤄가는 시간이 되길 소원합니다.

010-9650-7008 허은미B